

탁아활동의 김자이

1993년 6월호 첫발행 1992.5.25 통권 12호 발행인 최현숙

함 께 가 는 길

1993. 6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타아화도의 길잡이 1993년 6월호 첫발행 1992.5.25 통권 12호 발행인 최현숙

함께 가는 길

1993. 6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께 가는 길

6월호 <12호>

일하며 생각하며 / 2

우리 역량의 튼튼함으로 민간탁아소들과 만나자! 정희연

만나보았습니다 / 4

걱정모임의 임재택교수님을 찾아서 서정은

기획 / 7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강영추

아동관 토론회 자료 / 13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아동교육연구부

아동교육 / 24

전학에 관하여 아동교육분과

글마당 / 31

순이선생 윤주민

활동총괄 / 32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역에서 점차 자리잡아

탁아소별곡 / 34

바람이 부는데도 안 추워요! 김연숙

소식과 소식 / 35

우리들의 목소리 / 46

양은희, 이기원, 윤경신, 김경란, 이선주, 이상명

편집부에서 / 56

* 탁아소 백과 / 3 소아비만 (2)-영아 *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12

*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30 아이의 그림에 관심을 * 알아봅시다

/ 33 직장보육시설 현황 * 새책소개 / 53 * 지택면 벼룩시장 / 55

☆☆ 표지사진 : 사진첩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사진. 간식시간
에 찍은 듯 부스리기 묻은 입과 물기먹은 초롱한 눈망울
이 천진스럽다.

일하며 생각하며

우리 역량의 튼튼함으로 민간탁아소들과 만나자 !!

정희연 (본 회 부회장)

우리나라의 봄은 참 짧다. 날씨가 풀렸다하면 꽃이 피는 것도 잠깐, 어느새 여름이 온다.

빠른 계절의 변화 못지 않게 새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 변화의 모습들이 보인다. '잘한다'고 박수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얼마 못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등등 여러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우리 탁아운동은 이런 개혁의 바람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6월 12일 확정에 앞서 내놓은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사회복지분야 초안을 살펴보았을 때 새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는 기존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통분담의 원칙' 하에 경제회복을 꾀하고 그 범주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펴고자 한다. 그렇지만 탁아문제는 여러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차 늘어난 전반적인 사회의 관심과 폭넓은 계층의 요구 등으로 한정된 사회복지정책의 기조속에서도 탁아부분은 나름대로 입지(예산 등)를 확보할 것이라는 데 정책 담당자들조차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주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된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일구어 내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그간 지탁연을 중심으로 한 탁아주체(교사, 부모)들은 올바른 탁아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와 실천 활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탁아정책에 영향력을 미쳐왔다. 탁아정책의 불모지에서 우리의 활동은 이만큼이나마 정부의 의지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전혀 정책과 의지가 없던 때에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적당히 밀어내면서도 받아들일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고 개혁시대를 표방하는 신정부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구상속에서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정무장관, 민자당내에서의 '탁아문제 해결' 지시라든가, 민자당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가운데 본 회와 연계를 하는 등.. 선언적인 문제제기의 시기는 지나갔고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 들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과제로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

다른 하나는 모두 알다시피 수요의 90%이상을 민간이 담당할 수 밖에 없는 탁아현실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를 포함한 전체 민간탁아소들이 공공성에 토대하는 사업으로

탁아활동을 책임지고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탁아문제 해결을 위한 길위에서 만날 수 밖에 없는 많은 민간탁아소들과 함께 어깨 곁고 나가는 가운데 탁아운동의 주체로 서기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그간에 해왔던 우리의 역할과 영역이 여지껏 보다는 더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대하게 된다. 우리 활동이 뜻맞는 이들끼리의 활동이었다면 현 상황은 우리와 약간은(?) 다른 타 민간탁아소들 조차 만남과 연대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때다. 그간의 쌓은 우리의 역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타 민간탁아소들과 함께 갈 때다. 함께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많을 것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탁아활동의 시작은 어쩌면 지금부터일런지 모른다. 지금까지는 탁아문제의 현실을 알려내고 법, 제도의 토대를 닦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토대위에 어떤 열매를 열리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따라야겠다.

이제 민간탁아소들과 연대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발전과 직결된 문제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민간탁아소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분리의 사고에서 한발 벗어나 함께 할 수 있는 면을 찾는 적극적인 사고, 현장에서의 풍부한 논의와 한발씩 움직이는 연대활동을 기대해본다.

탁아소백과

/소아 비만(2) - 영아

(* 총 네번에 걸쳐 연재할 예정인 '영유아 비만의 판별법, 원인과 대안'에 대한 내용을 지난 호에 이어 두번째로 실는다.)

영아의 비만은 누가보더라도 이상할 정도로 극단의 비만일 경우나 신장의 발육이 좋지 않은데도 비만인 경우 살찌는 병이 아닌가 의학적인 검사를 받아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결론을 먼저 말하면 영아(출생부터 1세미만)의 비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식사제한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좋다.

생후 6-7개월의 영아는 신체의 지방함유율이 23-25%에 달하므로 어느정도 살찌게 보인다. 6개월까지는 토실토실할 정도로 살이 찌지만 9개월부터는 체중 증가가 지금까지처럼 현저하지 않고 1년에 1-2kg밖에 늘지 않고 조금 탄력이 있고 단단해진다. 비만아기의 대부분이 첫돌이 되면 보통의 체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너무 살찐 아기의 일부는 소아비만으로 이행되는 것도 사실이다. 약간 살찐 아기라고 우유를 적게 먹일 필요는 없으나 계속 비만이 진행되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새건강신문)

만나보았습니다.

걱정모임의 임재택 회장님을 찾아서

서정은 (편집부)

부산의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이하 걱정모임)'을 찾았다. 이 모임에는 본 회 부산지역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수, 탁아소대표, 시민들이 함께 하여 탁아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그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모임의 회장이신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사진) 교수님을 만나 걱정모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서정은: 안녕하세요? 본 회 탁아소 에 부산의 활발한 활동을 소개하고자 찾아 왔습니다. 부산에 '걱정모임'이 생긴 배경에 대해 소개부터 해주세요.

임재택: 1990년 3월, 부산의 어린 두남매가 부모가 각기 경비원과 파출부로 일하러 나가면서 잠군 지하셋방에서 불이 나 숨진 사건이 일어난 후 부산의 뜻있는 사람들이 같은해 11월에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을 만들었지요.

처음에는 보육시설과 직접 관련있는 사람 20여명으로 구성하였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700여명의 회원으로 늘어났지요.

서: '걱정모임'을 만든 취지라 할까, 방향은 어떤 것이지요?

임: 보육문제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모여 민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걱정모임이라 하겠습니다. 걱정모임은 향후 5년내 10만명의 회원을 목표로 하고 보육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청원작업을 하는 등 '밑으로부터의 보육제도의 개혁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 '밑으로부터의 보육제도의 개혁과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임: 일본의 보육운동을 살펴보면 보육사업에 대한 중앙, 지방정부의 투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지역주민들의 보육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던 과정이 있었으며,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구성을 볼때 여성, 노동, 교사계로 되어 있어 200여년간의 과정속에서 이루어낸 것이라 봅니다. 보육운동은 사회복지의 한 측면인데 사회복지라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수준에 올라서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편중된 부, 혜택을 '갈라먹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라먹자'고 할때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테고, 일반국민들이 함께 요구해야지 사회복지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니다. 일반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육법과 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육문제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시민운동, 국민운동의 차원으로 벌어져야 합니다. 지난 5월 6일에서 9일까지 부산시내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수집 운동'을 벌였는데 관심과 호응이 대단했지요. 민간 차원의 이런 움직임속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있는 부산의 걱정모임뿐만이 아니라 인천, 청주 등에 있는 뜻있는 분들이 걱정모임을 구성할 계획이 있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질 예정입니다. 결국 보육운동은 각 지역사회운동이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 말씀을 듣다보니 '걱정모임'과 '지탁연'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점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여겨지는데 약간 다른점도 느껴지는데요.

임: 제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고 실제로 걱정모임의 회원은 보육시설관련자보다도 일반시민이 대부분이고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도 구성이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등은 소속 보육시설간의 유대관계를 갖는 가운데 권익강화가 그 주요 목적이라 보입니다. 걱정모임을 잘못 오해하면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걱정모임은 그런 단체, 탁아소들을 돕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곳으로 현 체제와 구조속에서 민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작정입니다.

독일의 경우 운영비 중 국가가 20%, 일반사회단체가 40%정도를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종교시설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탁아문제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도 정부의 해결의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탁아문제, 유아교육문제였어요. 지방자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선거공약으로 모두 내세우기는 했으나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일언반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고 탁아소도 많이 늘어난 듯하여 국민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탁아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탁아소 몇개를 짓는 등이 아닌 탁아문제를 포함한 전체 아동의 교육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교육부의 유치원과 보사부의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것이 어렵다면 3세미만은 보사부, 3세이상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이원화 체계를 갖는 것, 이 방식은 세계 대부분

분의 나라가 취하고 있지요.

지난 4월 지탁연에서 주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밝혔듯이 '유아교육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는 가운데 거시적으로는 '아이들, 일하는 여성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연변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탁아소는 같은 법규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반일제, 기숙제, 주.월 단위제 등 다양한 탁아소로 나뉘 부모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에 초점을 맞추었고 유치원은 '아동'만을 초점으로 하여 부모의 요구를 고려치 않은 가운데 재능교육 위주로 하여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와 아동, 공동의 요구를 보육시설, 유치원에서 함께 담아내야 합니다.

서: 본 회의 '부산지역위원회'도 걱정모임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 회 소속 탁아소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임: 지탁연 소속 탁아소의 경우 희생, 봉사와 탁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고 있어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탁연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 또 하나는 보육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잘 조화해서 활동해야 하는데 현재는 소속 탁아소의 권익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전체탁아소들 공통의 관심사, 공동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요구'는 자칫 국공립보육시설과 갈등을 빚게 될 것입니다.

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때 이것은 우리아이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고 이전보다 더욱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탁연이 가진 숭고한 뜻과 신념을 옮길 수 있는 세대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야만이 애초의 정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사들의 이직도 잦고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몇 사람의 힘이 아닌 제도와 법으로 정착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좋은 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기획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강영주 (한국노동교육협회)

1. 개혁바람

부정부패 척결을 제1의 당면과제로 제시한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지 100여일을 맞고 있는 지금, 개혁바람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요즈음 TV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개혁이며, 가장 인기있는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만큼 개혁은 정치권만 아니라 재야권도 자본가도 군부도 사회 어느 한 구석 개혁바람이 불어 닥치지 않은 곳이 없다.

새정부의 개혁조치는 온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고, 그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민성을 부각시킨 인사(경호실장의 비육사 출신 임명과 국방부 차관의 민간인 임명), 인왕산과 청와대 개방 등의 조치와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의 재산공개, 뒤이어 터져나온 군 인사의 획기적 조치와 각 부문 특히 금융계, 교육계에 대한 사정 등은 엄청난 파문을 몰고왔으며,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인기위주의 개혁이라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속에는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혁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아직 그 범위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이른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그 동안의 개혁정책은 대체로 깨끗한 정치의 구현이라는 틀위에서 재산공개와 각부문의 구조적 비리의 청산이라는 줄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고통 분담론'이라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포섭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개혁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배경과 전망 등

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개혁정책의 배경과 성격

먼저 정부의 개혁이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 배경에는 권력내부의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권력내부의 요소란 3당합당으로 정권을 장악한 김영삼 정권으로서는 취약한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고 외적인 요소로는 국민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포섭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방식의 변화이다.

첫째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현 집권세력은 새로운 권력기반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력기반, 주로 TK세력의 무력화를 이루기 위해 개혁이라는 수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3당합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용감하게 변신을 한 김영삼은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 내고 그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획득했지만 스스로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기반의 취약성을 단시간내에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론에 의지한 물갈이이다. 이것이 재산공개와 금융계에 대한 사정이다.

2월 27일 김영삼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고 이어 3월 한달 동안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이 잇달아 재산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축재, 부동산투기 등 의혹이 제기되거나 은닉 재산이 드러난 인사들이 전현직 국회의장을 포함한 민자당의원 17명이었으며, 이들은 의원직 사퇴, 탈당,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장관급 5명도 현직을 떠났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민정계 출신이고 민주계는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 또한 동화은행장 구속으로 시작된 금융계에 대한 사정도 대부분 5, 6공의 실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이전의 권력기반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금융실명제 등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산공개와 금융계에 대한 사정은 물갈이를 노린 것이지 부패의 구조적 고리를 끊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자기 세력기반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개혁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김영삼 정권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개혁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둘째로 그 이전의 정권과는 다른 통치방식의 변화이다.

이것은 권위주의의 탈피를 통하여 지배세력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민간 정부라는 정통성을 확보한 김영삼정권은 권위주의를 벗어 던지고 여론에 기초한 지배를 관철시키면서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한 통치를 이루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

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정당성의 근거를 김영삼 정권은 개혁을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 활성화, 국가기강의 확립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김영삼 정권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를 위해 김영삼 정부는 물갈이와 함께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한 통치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재야인사 및 개혁적인 성향의 지식인을 권력구조 내로 영입함으로써 개혁과 문민정부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하나회와 9·9인맥을 배제한 군인사의 획기적 조치를 통해 군사통치로부터 단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 통치의 상징이었던 안기부, 보안사의 기구 축소 및 정치사찰 금지, 국가기구의 권위주의 탈색 등 그 이전 정권의 폭력적 통치방식에 대신해 철저적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통치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6공시기에도 중산층을 지배권력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 통치방식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현 정부의 변화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다. 현 정부는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언론, 지식인, 비판적인 사회단체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여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개혁의 칼날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방식의 변화가 곧바로 일반 민주주의의 확대 및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제방식의 세련된 변화에 불과하며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되고 있는 개혁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지배계급의 안정화와 자본축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즉 고통분담(내용적으로는 국민의 고통전담이지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89년 이후 세계경제의 불황과 맞물려 몰아쳐온 한국 경제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자본축적의 위기이다. 김영삼 정부는 자신의 계급적 기반인 자본의 이러한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활적 이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22일 발표된 '신경제 100일 계획'도 자본진영에게는 자금공급의 확대, 금리 인하,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민에 대한 '고통분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자본의 축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개혁이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포섭을 통한 지배세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이다.

경제적 측면의 개혁에 있어서 이렇게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듯이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권위주의적 색채의 탈색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기본권도 지배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의 제도정치권이나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제한될 것이다.

3. 개혁의 전망과 과제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일반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와 강력한 여론의 힘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개혁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고비도 있었지만 권력기반의 확대와 강화를 이루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해계모니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전시적인 개혁작업과 사정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권력구조의 개편과 밖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하는 결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00일을 가지고 성과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로 향후 개혁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배세력의 안정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의 개혁과 사정에 집중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슬로트 머신 사건을 비롯한 각종 비리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특정세력에만 편중되었다는 생각을 쉽게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동화은행 수취 사건 수사에서도 편파적인 수사를 보면서 지금의 개혁이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조치는 제도적인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일회적인 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인위적인 권력구조의 개편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혁이라는 작업이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간의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앞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 될 경우 국민의 지지와 여론의 향배는 한 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도 일단 여론의 힘을 얻어 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환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김영삼 정권의 정국 주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인가.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을 할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는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정국주의의 큰 변수인 광주항쟁에 대한 김영삼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5.18을 앞두고 5.18구속자에 대한 복권 및 보상, 5.18의 시기념일 제정, 기념관 건립, 망월동 묘역 확장 및 성역화 추진, 미신고자의 재신고 및 재심사 등을 골자로 하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5.18 광주항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핵심사안인 진상규명과 발포 책임자의 처벌이 빠져있다. 바로 이것이 현 개혁정책의 한계일 수 있다.

두번째로 금융실명제의 즉각적인 실시이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고 공정한 분배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과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의 기본방향만 잡혀있지,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빠져있다. 결국 경제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언제 실시될지

모를 상황에 이른 것이다.

세번째로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의 복직이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선별복직을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전교조의 합법화에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네번째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의 전면적인 개정 및 철폐이다.

개혁이 현상을 변화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다섯번째로 5.6공 비리의 과감한 척결과 청산을 통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다.

이외에도 개혁을 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때, 개혁이란 지배계급의 안정화와 자본축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에게는 물가상승, 임금억제, 기본권의 제한 등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4. 개혁의 진정한 주체

개혁의 본질은 군사독재 하의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구조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혁에 공감을 하며 심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민주화와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개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인색할 필요는 없다. 솔직히 말해 개혁이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개혁이 진짜 성공해야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개혁을 이룰 것인가. 김영삼인가, 민자당인가, 현 정부인가. 오직 한 명만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의 주체는 군사독재와 경제개발 정책하에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해 온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이런 사람들이다. 이들이 개혁의 대상이나 구경꾼으로 전락될 때, 개혁은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하루종일 아이들과 있다보면 바깥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기 어려운 것이기에 신문이라도 제대로 읽자는 취지에서 <신문소프트>의 주요내용을 발췌, 연재하였다. 현 체제속에서 신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문에 대한 공정성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언론운동 11호>에 실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연재를 끝마친다.

△정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조건

① 한국 정치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정당의 이합집산이나 흐름, 정당사, 정치가의 경력, 정치 인물사 등

② 기초적인 정치학의 방법론을 알아야 한다. : '정치행동자' (정당조직, 정치인, 사회단체)의 '정치적 행동' (정당가입 및 탈당, 성명, 청원, 연설, 시위 등)이 어떤것인지 알아야 한다. : 정치적 행동자의 정치행동은 '정치외교'에 의해 결정되고 정치외교는 사회, 문화적 위치와 관련된다. 사회의 정치, 문화가 정치적 행동자를 움직인다.

③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적 구조와 정치집단, 정치과정에 대해서 기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④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본다.

△신문 바로 읽는 법

① 신문자체가 현실은 아니다.

② 신문매체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신문은 팔기 위해 만든다. 정치에 잘 팔리는 소재다. 따라서 정치에 관한 기획기사가 많다.

③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1. 정당정치인과 출입기사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 공생관계, 선입견 개입 2. 정당과 정치인은 될 수 있는 한 기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3. 기사는 많이 써야 한다. 4. 기사거리를 만들어 낸다. 5. 정치인 동정기사를 많이 만들어낸다. : 기자의 주관에 많이 개입될 수 있다.

④ 어떤 관점에서 읽을 것인가. 1. 국민의 입장에서 읽는다. 정치기사는 '쇼'의 기능이 강하다. 한국정치는 '보여주는 정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내용을 유의깊게 보아야 한다. 2. 민주대연합의 관점에서 읽는다. 한국 정치기사는 상층정치 (정치세력의 정당, 정치인)입장에서 보도한다. 상층정치는 현실이며 그 핵심은 정치세력간의 관계이다. 따라서 힘의 관계를 고려, 현실을 인정하면서 정치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상층정치의 비대화속에 하층정치의 빈곤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통일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

아동교육연구부

서론

통일은 갈라진 조국이 하나 되는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이 판문점을 거쳐 또 하나의 조국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향린교회에서는 최근 '통일 공화국 헌법'을 발표했다. 통일이 눈앞에 온 듯하다.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통일에 대한 논의가 열띤 열거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오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일간지에서도 북한체제의 비난과 NPT탈퇴로 인한 북한의 전쟁도발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다른 현실이고 보면 이 대전환의 시기에서 우리는 정확히 통일을 이해해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갈라진 동포가 만나서 부둥키는 감정적인 눈물의 대상봉만이 아닌 진정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임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통일은 멀지 않았음을 느낄 것이다. 이전과 달리 설문지 조사에서도 국민이 느끼는 통일가능성은 불과 몇년 사이에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통일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자랄때만해도 통일에 대한 이런 분위기는 어림없었고 철저한 반공 교육속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다르다. 우리 아이들은 통일에 대해서는 되물을 필요도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며 자라고 있다. 그러한 통일이 어떤 내용이며,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를 떠나서, 통일이 먼과제가 아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은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건설해나가는 통일의 주체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교사의 할 일이다.

이글은 올바른 통일 교육을 하기위한 준비과정, 즉 교사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 교사 스스로 통일에 대한 절박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작업과 교육

현장에서 실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결하는 실마리로 탁아소에서 통일교육의 목표를 합의하고 현재 있는 교육내용을 모아 함께 통일교육의 만들어 내기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우리 모두의 열망이 모아지는 통일이 올바른 통일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과제로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통일교육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지한 고민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론

1. 올바른 통일의 길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언제가 통일의 날일지를 점쳐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지금 이전에 통일이 막연했을때의 당위적인 생각만으로는 올바른 통일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불과 3~4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정권차원에서는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여 반공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유포하면서 그러한 엄중한 분위기를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더이상 북한을 적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통일의 실질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통일만이 민족이 살길이라고 외치며 엄청난 희생과 힘을 쏟아부었던 민민 세력은 오히려 통일 운동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통일계획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문민정부가 출범했다고는 하나 이번에 발표한 통일 방안은 이전에 노태우 정권에서 구상했던 것과 구도 면에서 거의 다를 바가 없고 단지 좀더 구체화시켰을뿐이다. 통일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원칙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을 통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북한 모두 합의한 바 있다.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합의하는 바이고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선 특별히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무력통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무력의 '반평화'가 아니라 남북한을 모두 인정하며 서로를 위한 통일이 바로 진정한 통일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 정부의 통일방안이 남북 상호 인정하는 통일이 아닌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먹는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무력사용이 불가피한 통일방안이다.

자주의 원칙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민족대단결이라는 말이 원칙으로 될 정도로 우리 민족 전체가 통일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정부만의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민중들은 또다시 들러리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는 원칙의 차원에서 잘 견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통일은 남북한이 여러가지 통일 방안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작업을 이루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통일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발효하는 수준

에까지 가 있다. 이는 이전에 남북이 상호 체제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의 국가로서 서로를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통일의 수순을 착실히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의 길은 아직 멀다. 북한이 고려연방제안에서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당장에 1국가 1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사실상 2체제를 인정하는 유엔 동시 가입안을 받아들였다면 남한 또한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행은 미룬 채 북한을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제쳐두면서 그 체제의 열등성이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끊임없는 선전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확한 통일 계획은 남북한 전체 민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또다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이해에 따라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진정 통일을 원하는 자세는 >

우선 북한에 대한 비방을 당장 금하고 정확히 북한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 남한의 사람들이 모두 북한을 열등한 우리의 불우이웃쯤으로 알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 자랑스런 우리 동포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정부의 통일 노력에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면 우리 민민권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정확한 통일에 대한 선전과 자세를 갖도록 실질적인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올바른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한 내의 모든 제도적인 억압장치를 철폐하여야 한다. 통일을 외치다가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존경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작업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일의 장벽을 깨끗이 무너뜨리는 작업과 함께 안기부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중 모두에게 말로만의 통일주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를 내세울수 있는 기회를 정확히 보장해야 한다. 이는 남한내의 민주화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7.4남북공동성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금과옥조같은 내용을 갖고 있더라도 전체 민중이 알고 합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책임성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한마디로 하나의 중요성도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만으로 통일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것은 전체 민중에게 통일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빼앗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언제 어디에서고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통일 노력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통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통일 창구를 민간에게 열어 놓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겨레 모두가 주인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합의하는 민주적인 과정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부에서 걱정하는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암울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정치가는 정치판에서 노동자는 직장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 현장에서 각자의 생활에서 일구어내는 통일의 씨앗이 없이는 올바른 통일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다.

2. 통일을 이루어나갈 일꾼으로서 탁아교사들의 할 일

통일을 위해 우리 민중 전체가 해야 할 일 의무에서부터 자신의 뚜렷한 장인 탁아소에서 교사로서 할일까지 우리의 할일은 많고 길은 멀기만 하다.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의 고민과 실천은 끝까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이는 일반적인 과제와 특수한 과제로 나눌 수 있고 다시 목전에 닥친 과제와 앞으로 천천히 해나가야 할 과제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기보다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각자는 자신의 처지에서 이러한 여러 과정으로 고민과 실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1) 민주화는 통일의 전제, 통일 이후에도 과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각 사회의 민주화를 기본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남한의 민중들은 남한 사회의 민주화가 진정한 통일로 이르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민주화 투쟁을 통일 투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선민주 후통일이니 하는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일의 그날까지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지는 과제로서 민주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탁아문제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육아의 사회화라는 원칙을 잘 세울 수 있는 노력을 쉬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2)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직접적인 통일운동에 기여해야 한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통일은 그저 남북한 동포가 하루아침에 삼팔선을 허물고 눈물의 재회를 하며 다음날부터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하는 꿈의 작업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산더미같은 과제를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창구 단일화만을 고집하며 민중의 우민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의 방안과 과정과 우리 민중의 할일을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열심히 해나가야 안된다. 우리가 그 역할을 방기했을때 민중은 다시 정권의 이익에 놀아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여 우리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할 통일은 멀어지는 것이 된다.

각자의 지역에서 아이들의 부모를 중심으로 올바른 통일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 어른들의 올바른 의식이 아이들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탁아소에서 교육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중요한 일이 된다.

3) 탁아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통일세대의 이념에 길러주는 통일 국민으로 올바르게 길러내야 하며 우리 자신도 통일에 대한 전망 즉, 통일이 되면 어떠한 탁아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상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직접적인 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위에서 자세히 이야기 하도록 하고 통일이 되면 어떠한 탁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현재 남북한의 탁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북한은 아이들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져 부모의 일할 권리와 아이들의 보호, 교육받을 권리가 제도적으로는 철저히 보장되어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그 제도적인 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통일 이후에 남북한 공히 가져야 할 제도로써 어떠한 방향을 띄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고민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남한의 탁아 제도는 육아의 사회화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면적인 탁아수요의 사회적인 책임으로 충분한 탁아소를 확보해야 하며 그 교육적인 면, 고유의 면이 충분히 채워져야 한다. 또한 육아의 사회화와는 상반되는 '수요자 부담의 원칙' 즉 '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부모가 아이들의 탁아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탁아소의 영리화, 사영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없어져야 할 원칙이다. 이는 넓게 보면 사회 보장 제도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념이 모든 국민에게 최상의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이기보다는 극빈의 상황에 있는 소수에게 주는 일정한 정도의 혜택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회복지 이념의 변화가 함께 따라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탁아소는 아이들이 보호되고 교육되는 곳이며 아이들의 보호 교육이라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전사회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통일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에는 '통일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3. 통일 교육의 필요성

'통일은 우리생활 구석구석에 밀접하게 들어와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회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분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50년을 이어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남북의 이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 또한 반공이데올로기에 찌들어 북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한 민족의 형제라고 느끼기 보다는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우선시하고 북한을 이겨야 할 적, 집단으로 바라보는 반통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언론 역시 반통일의식을 불어넣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남북의 차이만을 강조하던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민족의 발전을 위한 통일을 고민하기 이전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전에 받

있던 교육의 효과로 통일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통일관을 갖지 못한다. 어른들도 올바른 통일교육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서 이야기해보자.

분단이후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통일조국을 건설할 주체가 될 가능성이 전세대들보다 높다. 통일이 이제는 내일의 일이 아닌 오늘의 과제가 된 상황이다. 통일조국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통일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반통일의식과 민족형제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통일의식을 불어넣고 북한 또한 함께 통일조국을 건설할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이다.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된 통일의식이 곧 통일조국을 힘있게 건설해내는 동력이 될 것이며, 이런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 이제껏 해왔던 우리의 통일교육활동을 점검해보자.

통일교육의 목표와 실재를 검토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껏 어떠한 자세로 통일교육을 해 왔는지 되돌아보자.

우선,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준비로 자신의 인식정도를 점검해보자.

- 1) 스스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 2)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혹시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지게 당위성만을 갖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올바르게 못한 통일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실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왔는가 생각해보자.

- 3) 통일교육의 의미를 통일 그 자체로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아이들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기르는 교육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협소한 통일교육관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 보자.
- 4) 아이들의 질문이나 올바르게 못한 생각에 대해 얼마나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혹시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대답을 하다가 아직 몰라도 될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설명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못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 5) 우리의 형식적인 교육과정 속에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선배들이 이루어 놓았던 것을 그대로 답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6) 통일과 관련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한 적이 1년 중 몇번이나 되는지 생각해보자.

5.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이 중요하다 인식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맞게 목표를 정하고, 교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통일교육이 갖는 내용자체에 어려움(어린 연령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기에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교육목표를 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아동을 통일의 주체로서 길러낸다는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서술하자면,

1)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민족동질성의식을 길러낸다.

이 민족동질성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다.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함께 다 같은 친구라는 것, 예전에는 함께 여러가지 같은 놀이, 같은 말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통해 따스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북한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임을 안다.(북한 바로알기)

북한 아이들은 먹고 싶은 것이나 입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로지 수령만을 위해 산다든지 통일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줄줄 흘리도록 만들어진 기계만은 아니다. 사회의 특수성에 의해 그러한 감성을 발달시킨 것이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생각과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

3) 우리민족간의 문제인 통일은 다른 사람(외세)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의식을 갖게 한다.

이 개념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없이는 외세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족의 주체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불어 넣어야한다.

4)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통일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대화와 상호 인정을 통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통일이라는 것이 서로 누구를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것인데 여기에 무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잘 살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전쟁은 절대 반대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5)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함께 의논하여 살아가는 민주적인 소양

을 일상에서 기른다.

어려서부터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면 통일 또한 자연스럽게 올바른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민주적인 훈련 또한 우리 교사들이 먼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이 비민주적이면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민주를 강조해도 올바른 의식으로서 아이들의 가슴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6. 통일 교육의 방법

통일교육의 목표가 정리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교육과정에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다른 고민이다.

교사가 통일에 대한 신념, 통일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나 태도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형식적인 교육과 더불어 우리의 일년 교육계획속에 일정기간 통일교육을 포함시키는 형식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지탁연내의 교육이 단원중심 교육이고 교육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할 때 형식적인 교육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일교육에 대한 고민을 집중화시켜냄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통일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하나, 저연령 아동에게 통일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아동은 어린 연령이라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잠재적인 교육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가정분위기가 그 아이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듯이 우리의 교육또한 교사 스스로 통일에 대한 절박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풍토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은 내면화될 것이다. 이러한 내면화 작업 역시 보이지 않는 교육이다. 또한 우리나라나 우주라는 개념이 어렵지만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통일 역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된다면 아동은 자신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연령의 아동은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것을 많이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민족적인 정서를 길러내는 탁아소 환경의 풍토를 갖는다면 통일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7. 통일교육의 실제

‘통일교육’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교사들의 고민이 담긴 올바른 통일의 관점에서 나온 내용이 더더욱이나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현재 교사들이 꾸준히 만들어오고 해왔던 자료들을 모으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현재 있는 자료에서 91년 지탁연에서 발간한 통일자료 모음집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현재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아동들에게 맞게 교육

하고 자료화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는 현장에서 해왔던 내용을 모은 것이다. 비록 양은 적고, 풍부한 내용은 아니지만 다시 적용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통일교육실제가 만들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1) 주단원 교육주제 (안산 진달래 동산)

- 1주: 전쟁은 싫어요. - 전쟁의 무서움을 안다. 친구들과 서로 싸우지 않는다.
- 2주: 우리의 소원은 통일 - 남북은 하나의 민족이며, 서로 오갈 수 있는 한민족이다. 북한친구들의 생활을 알며, 같은 친구들임을 안다.

2) 이야기 나누기

가> 전쟁은 싫어요. --교사가 직접 그림책의 형태로 만들어 한장한장 넘기면서 이야기한다. 내용은 친구와 싸우는 그림- 친구와 싸운 적이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 등을 이야기한다. 전쟁그림 전쟁이후의 폐허 그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전쟁이나 싸움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다. (동부 개나리동산)

나> 철조망이 없다면 -- 월간웅진 91년 6월호 참고

철조망이 있는 한반도 지도를 보여 주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철조망을 없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묻고 뒷장을 넘겨 철조망이 걷힌 이후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 민통선아이다들

3)동화

통일교육관련동화는

가> 민족적 정서가 들어있는 동화를 선택하여 들려준다. -전래동화, 통일은 참 쉽다. (산하), 우리나라 창작동화

나> 북한 어린이가 보는 동화도 들려줌으로 서로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최소화한다.

-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산하, 3500원)
- 잿빛 토끼와 파란 장화 (신구 미디어, 3500원)

다> 실제 통일과 관련한 동화

:분단의 상황을 알리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동화

- 다람쥐 동산 (어린이 마을 5월호)
- 백두아이 한라아이 (참교육사)
- 봄날 봄날에 (어린이마을)
- 반쪽만 비추는 거울 (한림 출판사)

:외세를 극복하고 자주성을 키우는 내용이 있는 동화

- 말뚝이 (행동과학연구소 웅진 출판 큰 그림동화)
- 장산곶 장수매 (행동과학연구소 웅진 출판 큰 그림동화)
- 돌리를 찾아라의 역사 속으로 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자는 내용이 있는 동화

- 조그만 송아지 (행동과학연구소, 웅진 큰동화)
- 누구하고 놀지 (//)

통일관련 동화는 대체로 주제의식이 너무 강조되어 어렵고 양이 많다. 교사가 내용을 줄이고 어린 아이들에 맞게 내용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림동화의 양도 적어서 새롭게 그림동화를 제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노래

: 우리의 국악을 의식적으로 들려준다. (사물놀이, 민요, 강강수월래 등등)
국악동요, 전래동요를 배운다. (3-4세 교육활동자료집, 지탁연)

● 통일관련 노래

금강산 찾아가자 / 작은 연못 (김민기) /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 남누리 북누리 (노래마을) / 새아침 (별첨자료) / 통일출을 주자 (통일자료 모음, 지탁연)

5) 조작놀이

우리나라 지도맞추기 퍼즐 등

맺음말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교사의 몸매 배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영아에게 무슨 통일교육이나 하기 이전에 통일과 관련한 노래나 전래동요, 국악을 들려주는 것도 통일교육이며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어울리는 것도 통일교육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글마당

순이 선생

윤주민

보인다 누이야
혼자 벌어진 안되겠더라구요 목 떨구는 눈들
점심시간에 달려와 아이 울리고 가는 가녀린 등줄기들
아이 뒷통수에 울음참는 앙다문 입술들
등둘러 코푸는 팔매질들

보인다 누이야 본다
지도도 그릴 수 있다 자만하여 온 세월을 비웃는
봉천동 꼭대기 삼양동 꼭대기
공단 한켠 스레트 건물
거기도 길은 있었고 사람이 아이들이 삽디다
썩썩이도 튼튼이도 개구장이다
이름은 다르건만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누이들이 있습니다
적어야 열 그 이상을 거느린 어미들이 있습니다
누이 가슴도 펴이나 시릴터인데
별없는 밤 웃음도 정도 마를만 하건만

보인다 누이야
누이로 하여 보인다
정 담은 빗질속에 코담는 손길속에
함께 엉킨 울음속에 웃음속에
대를 이은 노동의 꿈을 본다 보인다
큰꿈만 꾸어온 부끄러운 세월이 녹아든다
누이야 누이

** 필자 소개: 윤주민 씨는 인천노동자 문학회 시창작 반장으로 '우리네 방앗간'의 물품을 운송하여 지탁연가족들과도 친숙한 분이다.

활동총결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역에서 점차 자리잡아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어린이날 행사가 5월 5일 교육대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 교사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본 회 중앙아동교육분과가 어린이날 행사 준비위원회로 전화하여 준비한 이 행사는 지역별 행사를 치른 성남, 인천, 안산을 제외한 서울, 경인지역 지역위원회의 부모와 아동, 교사가 참가하였다. 지방에서는 광주, 대구, 부산 등 3개지역이 서울 경인지역과 같이 연대행사를 하였으며 대전, 군산지역은 지역아동과 함께 하는 행사, 전북지역은 지역위 차원으로 부모에게 편지 띄우기 등의 행사를 하였다.

서울 경인지역의 경우 작년에 비해 참가단체가 확대되어 준비한 이번 행사는 질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며 연대행사를 함으로 자기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를 서로 확인하고, 앞으로 단체간의 교류,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행사는 예상밖의 많은 인원이 참가함으로 인해 내년에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러면에서 고려해야 할 숙제를 남겼다. 즉 어린이들이 행사에 치이지 않는 장소의 선정과 지구별 분산개최 고려,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내용의 전면검토와 기획이다.

본회는 지난해 행사의 '유아프로그램의 부재'를 딛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 유아 프로그램의 내용을 행사에 담아 유아들도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들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를 위한 현장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아동문화에 대한 고민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는 어린이날 행사가 차츰 지역행사로 정착하고 있으나 어린이날 행사를 앞두고 사전에 교사들간에 어린이날에 대한 입장정리 및 자모, 자부와의 합의 과정을 갖는 것과 교사, 부모들이 어린이문화에 대한 고민과 바람직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겼다.

특히 어린이날이 공휴일임에도 쉬지 않는 부모들이 많은 관계로 행사 참여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이해작업과 어린이날만큼은 맞벌이 부부는 쉬어야 한다는 여론 형성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어린이날을 계기로 다시한번 어린이 문화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여론화하고 해결의 대안을 찾지 못한 것도 한계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교사, 부모들간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 본 회 소속 탁아소는 5월 5일에 쉬고, 어린이문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계기로 삼고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합의됐다. 기념행사를 중앙행사로 할 것인가 지역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역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알아봅시다 /

직장보육시설 현황

(1992.12.31 현재)

사업체명	회사부담	부모부담	보육아동
1. (주)로부-서울구로	전액	-	8 (명)
2. (주)협진양행-서울공장	//	-	20
3. (주)부흥-서울구로	//	-	33
4. 한국 여성개발원-서울불광	실비	67,000 (간식비2만원포함)	23
5. 태영산업-서울구로	전액	-	10
6. (주)삼양통상-부산	실비	20,000원 (간식비)	60
7. 한국생명-부산	전액	-	20
8. (주)협진양행-부산공장	//	-	9
9. 동일화섬-부산	실비	20,000원 (간식비)	51
10. (주)대한방직-대구공장	//	5,000원	9
11. (주)신도실업-인천	전액	-	9
12. (주)린나이코리아-인천	실비	10,000원	51
13. 한국담배인삼공사-광주제조창	//	20,000원 (간식비포함)	13
14. 충남방직(주)-대전공장	//	20,000원	36
15. (주)삼풍-경기안양	전액	5,000원 (간식비)	35
16. (주)동양복장산업-경기미금	실비	20,000원 (간식비)	18
17. (주)세모-경기김포	//	//	25
18. (주)삼부봉제-경기안산	//	10,000원 (간식비)	22
19. (주)삼성생명-강원	월30만원 (인건비)	42,000원	27
20. (주)원일섬유-전북이리	실비	자모회에서 간식 지원	60
21. (주)대한방직-전북전주	전액	-	18
22. (주)한성전직-경북구미	//	(가끔 보호자가 준비함)	30
23. (주)삼성전자-//	//	-	29
24. (주)코오롱-//	//	-	45
25. (주)쌍마섬유공업-//	//	-	27
26. (주)동국방직-//	//	-	40
27. (주)광진-울산	실비	20,000원	30
28. (주)신우물산-김해	실비	//	10
<보육수당지급>			
1. (주)화승	42명, 45,000	'90	'91
2. 흥아공업	2명, 35,000	시설수(개소)	19
3. 광덕물산	24명, 60,000	아동수(명)	700
4. 대봉	40명, 30,000		712
5. 대신교역	17명, 20,000		768
* 시설당평균보육아동('92): 27명			

탁아소별곡

바람이 부는데도 안 추워요!

김 연숙 (봉천 씨썩이 놀이방)

일어난 지 꽤 된 듯한, 잠이 다 깬 얼굴로 문을 살며시 열고 나오는 솔지. 그 뒤를 이어 여섯살 동지들이 줄을 이어 맞은편 방으로 후다닥 건너간다. 얼른 옷들을 주워입으며 속닥거리는 것이, 모두 깰때까지의 작전계획(?)을 세우는 듯 싶다.

언니들이 몰려나가는 바람에 선잠 깬 훈이는 거리낌없이 문을 한손으로 쿵-밀어 젖히고 당당한 포즈로, 떠지지 않는 눈을 부비며 서 있다.

일찍 깬 것이 무슨 죄랴!

숨죽여 속삭이고 있는 아이들의 진지한 눈빛이 새삼 우습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해서 오늘은 이모가 천사가 되기로 했다. 까치발로 살금살금 대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는 아이들..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게 낮잠을 일찍 깨는 날이 있는데 어린 것들이야 요란스럽게 문을 박차고 나오지만, 큰아이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동생들과 이모들에게 폐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알거나 하는듯이 조심스레 바깥동정을 살피며 나온다.

아마도 그간의 좁은 공간때문에 이런 기특하면서도 한편 안스러운 생활습관이 저절로 붙어버린듯 싶다. 먼저 일어나 떠들며 노는것은 불가능했으니 말이다.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매일 지나는 길이면서도 마치 처음 와보는 동네마냥 '야호'까지 외치며 뛰고 있다.

"이모, 이상해요. 바람이 부는데도 안 추워요."

멍하게 봉천동을 내려다보는 사이에 들려온 현재의 예리한 질문.

뭔가 이야기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교육적(?) 예감'에 얼른

"정말 그러네, 왜 그러지?"하고 되물었다.

이때 양봉창이 찬물을 끼얹었다.

"겨울이라서 그래, 이제 눈도 올꺼야."

아이들은 난간에 매달려 집들을 내려다보느라 헤리말에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렇지 않다는 걸, 봄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듯한 얼굴인것도 같았다.

'에라 모르겠다. 애들아, 오늘은 그저 시원하게 바람이나 쐬자꾸나'

*** 바로잡음/ 지난 5월호에 실린 탁아소 별곡 - 「롬비니동산의 하루는...」을 쓰신 김현선을 김현순 (부천)으로 바로 잡습니다.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사회복지정책요구안 채택대회' 열려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대위)」 주최 <사회복지정책요구안 채택대회>가 지난 5월 15일(토) 오후4시부터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실대내 사회봉사관에서 있었다.

본 회의 탁아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발표(사진)를 비롯하여 사대위 소속 7개 단체는 각 부분의 요구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날 채택한 요구안을 공동으로 신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김영삼 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에 본 회 최현숙 회장 참석

본 회 최현숙 회장은 지난 5월 21일(금) 12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각계 여성단체대표들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여성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김대통령은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정신대대책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여성정책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 '올바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서' 관계기관에 발송

본회는 '올바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서'를 지난 5월 21일(금) 청와대 방문시 제2장관실에 전달하고 이어 보사부장관, 국회 보사위원 앞으로 발송하였다.

본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탁아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매 해 '올바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을 정부측에 하고 있는데 이번 제안서는 1) 보육사업예산의 확대와 정부의 책임있는 보육시설의 확충계획 수립 2) 국공립 보육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와 아동지원의 대상을 넓히고 올바른 집행 3)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방안 마련 등의 제안과 보육사업지침에 대한 7가지의 질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4월호에)

제안서는 탁아정책에 관한 연구속에서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수행해야 할 것과 현장에서 탁아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내용을 모아 만들어지는데 제안서를 통해 밝혀진 본 회의 입장은 탁아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

와 탁아소의 시설확충 등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전체 체육대회 열려

지난 5월 23일(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경인지역 자원활동가 연대회의」 주최로 자원활동가 전체 체육대회가 숭실대학교 탁아동아리 '어린이 사랑회' 주관으로 열렸다. 조를 나눠 사각피구, 이색올림픽, 혼성족구 시합을 가졌는데 특히 이색올림픽의 경우 주관한 측의 재치발랄함과 익살스런 프로그램의 선정으로 참가한 자원활동가들은 고생스러웠지만 아주 좋았다는 반응이다.

본 회 소속 탁아소로 자원활동을 나가는 학교들간의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이날 체육대회에는 국민대, 서경대,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숭실대, 총신대 등의 자원활동가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KBS에서 지역대표자회의 촬영

지난 5월 27일(목) 정기 지역대표자회의의 회의과정을 KBS '현장, 요즘 사람들'에서 촬영하였다. 이날 촬영은 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꿈나무 어린이네' 탁아소의 활동과 생활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역활동과 연합활동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함으로 6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된다.

- 신경제 5개년 계획 사회복지분야 토론회에 참석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 주최 「신경제 5개년 계획 사회복지분야 토론회가」가 6월 5일(토)

오후 2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작성지침에 대한 사회복지부문 평가와 사회복지정책 방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으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권도용(한신대교수),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김연명 (사대위 정책위원장), 김인근 (경제기획원 사무관)등의 토론자 논평이 있었다. 이번 계획중 탁아에 대한 기본 방침은 '직장탁아 확대'와 '민간참여확대'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본 회 이경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탁아부문에 있어서 직장탁아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비영리민간탁아소 활성화 방안 마련, 저소득층지역에서의 국공립탁아시설 확대, 보육시간 연장, 대상연령의 조정 및 3세미만의 영아탁아에 대한 배려 등이 언급되었다. 즉 신경제 5개년 계획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탁아문제의 줄기는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더우기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잡아나가기 위한 자리로 토론자들은 주로 사회복지의 이념과 예산문제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김연명씨가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의 요구와 수혜자의 민주적 참여구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종합토론시간에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이념에 대한 질의응답과 각 분야에서 국민연금과 탁아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탁아문제 중 현재 직장탁아확대방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이상의 사업장'의 탁아소설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문제, 그리고 복지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방안이 자칫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복지분야를 시장경제에 맡기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존의 방침만을 내세웠으며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탁아분야에 대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자세와 자신감을 보인 것은 (경제기획원 사무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 관계부처가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올리면 대폭축소되어 집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탁아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보사부의 예산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며 이는 탁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복지정책이 재원확보나 전달체계 그리고 올바른 복지이념의 확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탁아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도 일정부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더욱더 본 회의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경희 사무국장)

- 서울시 보육위원회 열려 구립보육시설 위탁제선정순위에 개인점가치로

'93년도 제2차 서울시 보육위원회가 6월 10일(목) 오전 11시에 서울 세실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서울시 보육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진 이날 회의의 주요안건은 <'93년도 보육사업추진 현황>과 <보육사업개선가능사항 토의>이다.

서울시는 보육사업개선 가능사항으로 세가지를 들어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보내진 자료를 갖고 보육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의 내용을 보면 첫째 '영아 연령 구분'건은 보육료수납시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영아보육료를 납부하게 되고 보육료 과다부담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만이 크고 3세미만과 3세 이상의 구분을 매년 1월 1일로 하는데 정부편의 및 시설운영자 위주의 보육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을 들어 보육아동의 생일기준으로 보육료를 수납하는 것, 만 3세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유아보육료 납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아간식비지원을 폐지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올리는 것, 영아의 보육료를 2세미만과 2세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것,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월 2만원의 영아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2세미만 아동의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구립보육시설 위탁제선정'에 있어서 현행선정기준대로 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한정되어 있고 개인이 법인을 끌어들여 위탁받는 사례, 시설 운영의 경직화와 사유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위탁시

선정을 받는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개인도 위탁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 안전중 첫째, 둘째 안전은 부결이 되었으며 세번째 안전중 구립 보육시설 위탁제선정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두되, 각 자치구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하면서 개인을 첨가하기로 하였다.

- 「대학내 탁아소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

본 회 최현숙 회장은 「대학내 탁아소설치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탁아운동의 필요성 및 우리나라 탁아현황'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내 탁아소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교내 탁아소 설립의 필요성과 국내외 대학 부설 영.유아원의 사례, 서울대 탁아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안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자녀를 가진 대학원생들의 학업유지와 연구를 위해 탁아소 설치를 추진하는 주최측은 최근 기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학내 설문조사를 통해 93%가 설치를 찬성하고, 81%가 이용하겠다는 등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청회는 6월 14일(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소강당에서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민자당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예정

민주자유당 여성국 주최 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본 회 최현숙 회장이 초청받아 참석한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1) 현

보육실태 파악을 통한 개정방향 수립 2)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연대모색이다.

특히 민자당 여성국이 최근에 현대 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각계각층 여성인사와 여성단체 회원 1천1백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6 조선일보 참조)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모자보건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탁아제의 확충(53.4%)」을 우선과제로 뽑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간담회가 주목된다. 간담회는 6월 16일(수) 오후 2시에 민자당 중앙당사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 사대위 간부수련회 참석 예정

오는 6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간부수련회'를 송실대내 사회봉사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의 내용은 '특강- 정부 예산 편성과 확보 방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각부문 입장 발표와 토론' '사대위활동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에는 회장단과 사무국이 참석한다.

지역위원회 소식

* 지방소식은 5월 25일 지방지대의, 6월 10일 지방개특위에서 보고된

내용을, 서울경인지역 소식은 5월 27일 서울경인지대의에 제출한 지역보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동부 5월 12일 건국대 대동제중 '아동초청잔치'에 참석하였다. 5월 18일 지역교사회의를 가져 어린이날, 공청회 평가를 가졌고 아동공동캠프 준비를 논의했다.

6월 중 '보육지침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아동교육과 교사재교육을 하기로 했다.

각 탁아소 상황을 보면 개나리동산 어린이집은 건국대 대동제 기간동안 알뜰장터를 열어 백여만원의 수익금을 남겼고, 오손도손어린이집은 자모회의에서 비누만들기 소모임을 하기로 하였다.

구로 5월 25일 월례회를 가져 인간관계 훈련을 했다. 6월 활동계획은 지역 상반기 평가와 월례회때 지역모임의 활성화와 효율적 구조를 위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각 탁아소 상황을 보면 튼튼이 어린이집은 5월 23일 수원 그랜드 캠프로 소풍을 다녀왔고 5월 28일 여성노동자회주최 '탁아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6월 5, 6일 이틀간 알뜰장터를 열었다.

성남 5월 4일, 18일 지역교사회의를 가졌다. 6월 계획은 공동부모회를 개최하는 것과 민간탁아소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천 5월 10일 개특위모임을 가졌고 뒤이어 5월 21일 개특위 모임에서 '시의원 간담회'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5월 24일에는 비

영리시설장 모임을 가져 시의원 간담회를 검토하였고 간담회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 5월 16일에는 '지역 어린이 큰잔치'를 공부방 두군데와 부천지역위원회 소속 탁아소 3군데가 모여 열었다.

수원 5월 21일 아동교육분과 엠티를 실시하여 1년 교육계획안을 점검했으며 6월 2일 공동아외수업을 가졌다. 용기종기어린이집은 5월 25일 개원잔치를 열었다.

대전 5월 10일 '노동의 가치를 아는 교육'이라는 내용으로 교사교육을 가졌고 5월 31일에 전체교사회회가 있었다. 6월의 사업으로는 6월 26일에 '대전지역 여성정책 공개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날 다루어질 내용으로는 '여성취업, 탁아에 대하여'와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다.

각 탁아소 상황을 보면 샘골어린이집은 5월 18일에 '마법의 시간여행' 연극을 관람하였고 즐거운 놀이방은 5월 5일 대청담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한 나들이와 수익사업을 하였다.

광주 5월 17일에 5.18 광주민중 항쟁 전야제에 탁아소 아이들이 찬조출연하여 노래와 율동을 보였다. 5월 22일에 있었던 5월 여성제에 참여했다.

5월 25일에는 놀이방 협회 모임이 있었다. 각 탁아소 상황을 보면 우리동네 아기둥지에 나오는 '사랑의 놀이방' 지원금 집행에 있어 무원칙하여 계속 알아보고 있다. 도담도담아기둥지는 무등일보에서 5월 11일에 열린 자모회를 취재하였으며 5월 23일 '남

광주지역 주민큰잔치'에 참여하였다.

대구 5월 14일에 전교 조 사무실에서 어린이날 평가모임이 있었고 5월 17일에서 일박으로 개특 위사업과 아동관토론회를 가졌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에 걸쳐 경북대 축제때 수익사업을 하였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 소식지 4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각 탁아소 상황을 보면 배꼽 마당은 백선희 교사가 병가중이어서 안경자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탁아소신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감나무골은 5월 13,14일에 개원 2주년 기념잔치를 하였다.

대구지역에는 '신일전문대'와 '영진전문대'에 새로 양성교육기관이 생겨 6월부터 시작하였다.

전북 전북지역위는 부안의 돈지어린이집과 마포어린이집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5월 15,16일 이틀에 걸쳐 12명의 지역위원회 교사가 함께 수련회를 가졌다.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의 방향성과 탁아운동론에 대한 토론등이었으며 교사들끼리 선물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8일, 22일에는 전북연합에서 실시하는 '부정비리 척결및 금융실명제 실시 요구대회'와 가두서명에 참여하였다. 6월 5일에 전북여성운동연합에서 정세연구 설명회를 가졌다.

각 탁아소 상황을 보면 금암어린이집은 6월 5일에 하루차집을 하였고 일터어린이집은 5월 28일 용인자연농원으로 소풍을 갖고 이어 하루차집을 하여 2백여만원의 수익금을 남겼다.

군산 어린이날이 낀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잡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교육내용과 일정을 보면, 5월 3일은 공동작업, 4일은 나들이, 5일은 시장나들이, 7일은 자원활동가와 아이가 일대일의 나들이를 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로는 준비주체의 마련이 분명하지 않았고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고 준비주체로 부모대표를 참석케해서 어린이와 어른과의 올바른 관계속에서 준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민간탁아소들과 연대활동은 그동안의 만남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였던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민간탁아소들과의 연대의 의의와 필요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활동을 배치할 계획이고 6월 11일 '규율과 규칙에 관하여' 주제로 하는 아동관 토론회에 군산시내 40명 미만의 어린이집 11곳에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해뜨는 동산 아동 8명에 대하여 1인당 200원의 간식비가 1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었다.

모임과 모임

<지역대표자회의>

-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5/13, 북부, 인천 불참)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용도변경건과 공청회 평가 및 향후 일정에 대한 개특위 활동보고가 있었으며 공청회 이후 지탁연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정책소위 논의내용 보고가 있었다.

안전으로 올라온 공청회 및 어린이날 행사 평가는 지역평가를 한 후에 정리하여 총평가서를 제출하면 다음 지대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자료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지탁연 소식지 및 자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으로 6개월 회비 1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연합회 제정과 맞물려서 각 탁아소의 회비를 5천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방지역대표자회의

(5/25, 마산 불참)

개특위 논의에 대한 보고 및 중앙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평가 보고와 5월 15일에 있었던 사대위 주최 요구안 채택대회에 대한 중앙보고가 있었다.

자료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서울경인지대의에 이어 공유하였으며 민간탁아소 연대에 소식지 등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역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평가를 포함한 지역보고가 있었고 민탁연대와 지탁연의 향후에 대한 논의가 정책소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회비인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원칙적으로 5월부터 5천원씩 인상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으나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다음 지방지대의는 6월 22일(화) 군산에서 있다.

-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5/27, 중부, 봉천, 북부 불참)

아동교육분과에서 최종 정리된 어린이날 행사 평가서를 검토하고 어린이날에 대한 의미를 좀더 확대, 공유하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탁아소 휴무일로 지키는 것과 중앙이나 지역에서 어린이날의 의미를 살리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민간탁아소 연대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점검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준비한 발제문을 중심으로 민간탁아소연대와 지탁연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지대의에서하기로 하였다.

- 서울 경인지역대표자회의

(6/3, 부천, 인천 불참)

영아탁아모임을 처음으로 했다는 보고와 집행위에서 논의된 개정안 국회상정건, 탁아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중앙보고가 있었다.

안전중에서 수련회 날짜를 8월 2-4일로 확정하고 준비위원은 남미영 부회장, 사무국 2인과 구로, 안산, 수원, 중부지역대표로 구성하였다.

서울시보육위원회 회의 안전에 대한 검토와 여성평화의 집에 대한 논의가 되었는데 7월말에 입주예정인 여성평화의 집이 위치가 장충동이라 실무자나 지역교사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공간이 생기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민간탁아소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탁

아소연대를 해야하는 근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조직분과>

인천지역위 조직분과장인 송민숙 씨가 지역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앞으로 분과활동을 하기가 힘들게 되면서 분과원이 3명(구로, 중부, 안산)으로 되었다.

그동안 근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신입교사 재교육 커리큘럼>이 일단 마무리 되었고 6월에는 작년 자모조직분과에서 자료로 내었던 것들을 모아 내용을 보충, 재검토하여 묶어내기로 했다.

또한 조직분과가 자모와 교사의 조직에 대한 것이 절충되어 내용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재 조직분과의 역량과 지탁연내에서의 분과의 위상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각 지역위에서는 대표자회의나 분과회의를 통해 위의 제안에 대한 일차적인 논의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아동교육분과>

- 서울경인지역 아동교육분과

서울경인지역 아동교육분과는 타 교육관련 단체와 연대해서 치룬 어린이날 행사 평가작업을 하고, 푸짐한 뒷풀이를 하여 그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달랬다. 중앙 차원으로 준비하였던 어린이날에 대한 평가는 1) 본 회의 적극적인 결함은 어린이날 행사의 대상이 유아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낳았으며 전체프로그램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2) 본 회내에서도

어린이 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우리의 과제를 다시한번 되돌아 본 계기가 되었다. 3) 현장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이후 과제로 전체 행사 체계가 미흡하고 그에 따른 행사 미숙과 어린이날을 계기로 한 어린이 문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여론화 작업이 부족함으로 당일 행사에 그친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교사들의 충분한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연대행사로 치뤄내며 많은 인원을 포괄하고 좀 더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기획으로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역별 행사에 대한 평가는 다음모임에 하고 그와 아울러 일상사업을 열심히 해 낼 것을 결의했다.

- 지방아동교육분과

5월 26일 대전 민주청년회 사무실에서 6개 지역위원회 모두 참가하여 지방 아동교육분과 모임을 가졌다. 지역상황을 보고하고 교육활동 교류시간을 가졌다. 중심 논의 안건은 어린이날 행사평가와 '통일교육' 아동관 토론회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의견을 모았다.

어린이날 행사를 타 단체와 함께 치룬 지역은 광주, 부산, 대구 지역이었으며, 탁아소 독자행사는 대전과 군산지역에서, 전북지역은 편지 띄우기를 하였다. 행사 평가는 작년에 비해 내용성을 담보한 행사였고 각 지역별로 어린이날 행사가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교육' 아동관 토론회에 관련

하여 지역, 각 탁아소에서의 교육활동을 점검했는데 교사의 통일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교육목표를 정하고 이야기 나누기, 동화, 작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아동관 토론회에서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높이는 것과 아동에게 통일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와 실제 교육목표와 내용을 합의하는 토론회이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다음 안건은 <아동관토론회 세미나>와 <수련회에서 아동교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이며 6월 30일(수) 오후1시에 대전에서 있다.

- 영아탁아모임

지난 5월 31일(월) 오후 3시에 본 회 사무실에서 영아탁아소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세쌍, 세쌍둥이, 세터 어린이집과 푸른솔 애기방 등 4곳의 탁아소와 남미영 부회장, 오윤정 아동교육간사가 함께 했다.

첫 모임이니만큼 참석한 교사들의 소개와 각 탁아소의 일상활동, 운영실태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교류하고 영아탁아교사모임의 의미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다.

앞으로 영아탁아소가 늘어날 추세이고 유아탁아소인 경우도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영아 및 영유아기의 아동에 대한 교육적 내용, 영양, 건강문제 등이 앞으로 체계화되어야 하고 특히 영아탁아교사들에 대한 교육강좌나 세미나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나와 이후 과제를 찾을 수 있었다.

하나의 분과로 중앙에 자리를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약 3년정도의 역사가 있는 영아탁아 경

험들을 모아서 자료화하는 작업도 시급하리라 본다.

다음 모임은 7월 3일 (토) 오후 3시이며 '하루일과표'와 '식단'을 각 탁아소에서 모아와 논의하고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 본 회 영아탁아소들은 '92년 여름 수련회 때 영아탁아교사모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차적으로 일상활동 교류를 위해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의 모임을 해왔다. 이번 모임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즉 지역간 거리도 멀고 빠지는 곳도 생기는 등 모임의 체계를 잡기가 어려워 중앙에서 영아탁아모임을 받아줄 것을 제안하고 중앙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 회 소속 영아탁아소는 세터어린이집(구로지역), 세쌍어린이집(인천), 세쌍둥이어린이집(//), 엄마방어린이집(//), 푸른솔애기방 (성남), 동방어린이집 (//), 오손도손어린이집(안산)으로 7곳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서울경인지역 개정위

5월 12일에 모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평가와 '어린이집 용도변경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용도변경의 경우 현재 인천시외에 다른 곳은 전혀 움직임이 없으나 인천시의 80여개 탁아소들이 거의 올 해말까지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전화나 공문을 받았으며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폐쇄 등의 조치가 있

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개특위에서는 우선 보육사업지침, 건축법, 시조례 등을 찾아서 용도변경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운데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5월 26일에는 서울랜드로 야외개
특위를 갔었으며 6월 9일 모임에서는
9월에 있을 '간담회'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실태조사를 토대로 민간탁
아소들의 전체적인 운영상황과 어려
움을 드러내고 정책대안을 모색해보
는 자리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
간탁아소들과의 연대작업을 강화하는
자리로 모아져야 한다는 논의가 되었
다. 서울시보육위원회 6월 회의자료
를 검토하였다.

-지방계통위

5월 21일 지방개특위는 변산반도
채석강으로 야외개특위를 갔다왔다.
6월 10일 모임에서는 '용도변경'에
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으며, 9월
간담회 및 서울시 보육위원회 6월 회
의자료를 검토하였다. 7월 지방개특
위는 7월 8일(목) 12시30분에 대전이
다.

<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는 교육이론에 대한 자체 세미나와 「좋은 놀이 도구는 좋은 아이를 만든다」는 제목의 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6월에 있을 아동관 토론회 <통일교육> 준비로 초여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1) 놀이감 관련 책 발간을 '한립 토이스'의 후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용은 놀이의 중요성, 어린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들, 작은 칼럼 - 피해야 할 장난감, 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장난감, 유치원 교사들이 추천하는 좋은 놀이 도구들, 좋은 놀이 도구를 파는 곳, 탐방코너 놀이감 상담 전화 등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교육서적으로 예상하는데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6월 초고 완료)

2) '통일교육' 아동관 토론회는 연구부내 통일교육 준비팀에서 준비하고 전 연구부원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준비하고 있다.

‘통일교육’ 토론회의 목표는 아직
까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통일의
절박성을 느끼고, 교사들이 어린이들
에게 통일교육이 꼭 필요함을 느끼는
계기로서 준비하고 있다.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사람들

* 後

안산지역 꿈나무어린이네에서 활동하시는 서현경씨가 5월 28일(금)에, 아동교육연구부의 남자연구부원이신 이항우씨가 5월 29일(토)에, 구로지역 구로어린이집의 교사이셨던 권혜진씨가 6월 5일(토)에 결혼하셨습니다. 지탁연 전 가족여러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 새로오신 분들

북부지역의 어린이사랑방에 변주

남씨가 6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구로지역 새터어린이집에 김진숙씨가, 오산 햇살어린이집에 수원 아이벗에서 활동하셨던 김정순씨가 새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연수

* 광주지역위원회 소속 우리동네
아기둥지 주경남, 도담도담 아기둥지
김영씨가 6월 한달동안 일본 탁아소
연수방문을 떠났습니다.

* 일본 오오사카 이쿠노쿠에 있는 애신보육원에서 일하시는 이농자 (재일동포) 씨가 6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본 회 소속 탁아소활동을 함께 합니다. 방문 탁아소는 구로지역 새터어린이집과 인천지역위 소속 탁아소들입니다.

〈기타 소식〉

**** 최근에 유치원의 잡부금 징수**
 가 물의를 일으키면서 취해진 직접적
 인 조치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유치
 원 교육과정의 정상화로 학부모들의
 물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조리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유
 치원의 부담 운영행위나 학부모들에
 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신
 고할 것을 공고하였다. (93.5.25. 서
 구메아리)

* 부당운영행위 (사례)

-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과 무
관한 학습지 (문제지) 사용 및 영어지
도

- 종일반을 병자한 미술, 피아노,
태권도, 영어 등 특별반 운영

- 캠프, 재롱잔치, 작품전시회, 동화대회 등을 빙자한 금품 수수
- 원복, 체육복 등 단체복 착용에 따른 금품 수수
- 허례허식적 입학, 졸업식(졸업 선물, 기념품대, 앨범비 징수)

◆♠◆♠◆♠◆♠◆♠◆♠◆♠◆♠◆♠◆♠◆♠◆♠◆♠◆

'93년 하계수련회

일시: 8월 2- 4일 (월-수)
(2박3일간)

장소: 서울 숭실대 사회봉사관

내용: 아동교육의 이론과 실제, 특강 두가지 - 내용 조정 중, 민간탁아소 연대작업에 대하여, 지탁연 가족 전체 체육대회 및 공동체 놀이 등

지탁연 전 가족이 일년에
두번 만나는 장, 반가운 얼굴들
모두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

우리들의 목소리

엄마랑 아빠랑

신나게 쿵쿵쿵

양은희
(인천시민간보육시설연합회총무)

오른손 짹펴면 오월이 되구요
왼손을 짹펴면 오일이 되지요
오월 오일은 어린이의 날
오늘은 즐거운 우리들의 날. 짹!

이른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 입구에 들어섰다. 대운동장 멀리 자원활동가들이 든 오색풍선이 하나씩 늘어가고 진행요원들의 빨간색 옷이 바빠 움직이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다. 심한 기침감기로 업혀있는 지담이로 인한 불안감은 '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고맙기도 하지.' 하는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결계그림을 걸고 풍선을 매달고 구별 깃발을 세우고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간 어린이날 행사를 해왔던 경험을 가진 인천지역위 교사들, 특히 아동교육분과가 이번 행사에 주도적 역할을 해낼 수 없었던 점, 민보련 임원진내에만 기획단위를 둔 점, 기획기간이 짧아 의견수렴과 홍보가 부족한 점,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벌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점, 행사 취지와 프로그램을 참석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점, 예상인원을 예측하기 무척 힘

들었던 점,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고 힘들지만 이런 행사를 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다행히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천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학교내 전기공사로 모든 전기공급을 끊었다는 것이다. 어제 마무리 점검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해 놓기로 하지 않았던가! 착오가 생겼다. 눈앞이 캄캄했다. 매달리는 지담이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뛰었다.

"бат데리가 엠프에 연결이 안돼요. 인근 가정집에 전기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출력이 많아 저항이 심해요.."

시작할 시간은 다가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왜 시작 안해요? 모자(기념품)는 왜 모자라는 겁니까? 개인으로 온 사람은 기념품 안줘요? 어디에 서요? 간식은 언제 주는거예요?.."

후원자도 진행자들도 모두 모두 도착하고 모든 준비는 끝나고 시작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엠프를 악기사에서 빌려오고 봉고차에서 бат데리를 뚫어 연결하였다. 행사는 시작되었다. 아득하게 느껴졌다. 보채던 지담이도 안긴채 잠이 들었다. 이 아득함 속에서 다가오는 한마디!

"처음 행사가 이정도면 내년엔 잘 될거야."

|| 함께 가는 길은 지막연 가족이
|| 함께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제3회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을 다녀와서

이기원(수원 용기종기 어린이집)

"여보세요? 유림이네죠. 아직 출발 안하셨어요? 빨리 오세요!"

휴- 5월 5일 아침은 전화통을 붙드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이다. 행여나 휴일(?)을 빙자해 약속시간 8시 20분을 넘기는 잠꾸러기 엄마,아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결국은 8시 40분에 출발했지만)

교육관련단체 9개가 함께 주최하는 아이들의 한마당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교대로 가야 하는데 사실 수원에서 서울행이라면 웬만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 왜냐하면 엄마,아빠들의 생각에는 서울=고생길로 박혀있고, 정작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엄마,아빠가 지쳐버린다면 아이는 그날 '제사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금 18만원을 들여 버스를 대절하고 엄마,아빠들에게는 회유와 협박(?)으로 어린이날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아담한 서울 교육대학 곳곳에 꾸며져 있는 그림과 전시가 어우러져 5월 5일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발 디딜 틈 없는 각종 행사장과 놀이장을 돌아보며 그곳이 비록 우리에게 익숙한 서울랜드,롯데월드의 화려하고 짜릿한 눈요기를 즐길 순 없더라도 아이들 스스로가 해보면서 배우는 놀이가 기계음에 젖어있는 우리 아이들을 고쳐줄 수 있는 약은 될 수 없

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월의 푸르름을 담은 우리 아이들.

소파 방정환 할아버지가 식민지시대 '어린이 운동'으로 어린이날을 만드신 지 70여년이 흘렀건만 그 당시와 지금을 살펴볼 때 아이들은 다르지만 각종 식민지문화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 느껴진다.

수원으로 향하는 차속에서 내년엔 더 많은 엄마,아빠, 친구들을 큰 차 가득 채워 제4회 어린이 한마당에 참여하리라 결심했다. 왜냐하면 방정환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다른건 몰라도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을 권하셨을테니까 말이다.

탁아소 회지를 읽다가

☆ 어느날 솔지가 이모에게 자랑을 했다. "우리 아빠가요. 이다음에 나 많이 크면 큰 로보트 사 준댔어요." 옆에서 이를 들은 훈이가 혼잣말로 하는 말, "많이 커라"

☆ 혜성이는 항상 자기 누나에게 누나라고 안부르고 '신해'라고 이름을 부른다. 어느날 혜성이를 붙잡고 '누나'를 가르쳤다. "신해가 아니고 누나야, 알았지? 자, 누나라고?" "신.. 누나!" 열댓번을 하고 나서야 혜성이는 누나라는 말을 했다. "누나라고?" "누나" "와, 우리 혜성이 잘하네, 아이고 예뻐라, 자 여긴 누나지? (이모를 가리키며)" "아줌마!"

☆ 평소 반찬을 많이 가려, 식사때마다 이모와 씨름을 하는 현귀앞에 어느날 콩밥이 나타났다. 밥그릇을 한참 들여다 본 현귀가 인상을 쓰고 투정섞인 말투로 하는 말, "이모, 오징어 땅콩 안 먹을까요."

5월 5일 인형극 공연을 하고난후

윤경신
(동부 개나리동산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인형극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다. 산업화가 되어가고 외국문화가 휩쓸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짝이고 순간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커다란 기계소리와 같은 전쟁 폭음소리 등에 심취되어가는 아이들에게 우리고유의 정서에 맞는 것 말이다.

흥미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순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을 나눌 수 있는 내용과 어머니가 만들어 준 인형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팍한 경력때문에 한참동안은 잊고 살았던 인형극 준비 권유를 받았다.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중 유아프로 그램으로. 지난날 나의 인생의 추억으로 남은 일들이었지만 막상 함께 했던 동료들도 없이 나 혼자서 각색, 연출, 소품제작 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먼저 앞섰다.

대답은 선뜻했지만, 나의 능력밖에 생각되어 마음 한 구석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마침 내가 다니는 개나리동산에는 함께 할 자원활동가들이 몇 있어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은 처음이라 잘 못한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설득했

다.

서로의 시간들이 맞지 않아 일주일에 두세번 그리고 연습시간도 한시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잘 따라주었고 생각보다 잘했다. 인형제작에 있어서는 특별한 방법이나 모델이 없었기에, 인형 하나 하나에 그때 그때 손이 가야했기에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막상 인형제작과 대본 연습을 시작하고 나니 새로운 마음과 각오 등으로 힘이 솟았다.

5월5일 공연.

공연은 성공이라고들 했다. 과연 성공이란 말이 어울리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준 내가 생각하는 인형극 공연의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내용면으로 충실하려고 노력했는지, 어느정도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었는지 말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준비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서로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까. 인형극공연을 떠나 탁아운동을 하는 한사람으로 자원활동가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었을 뿐 끈끈한 정과 후속모임 등을 미처 생각 못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으니까.

인형제작에서부터 대본각색 등을 분담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켰으면 이러한 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그래도 미흡했지만 한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은 남는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한 시간으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아이들의 나라는' 공연장을 다녀와서

김경란 (동부 오손도손 어린이집)

따르릉-

"여보세요? 오손도손 어린이집입니다. 네?...네 "

자, 선생님들 모두 모이세요. 긴급토의. 우리 아이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어떨까요?

이게 웬 흥두개 같은 소리가 하면서도 우리는 후원금(출연료)과 공연장이 상계동이라는 원초적 이유, 들만으로 모든것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주최쪽에서 특별히 보내 준 봉고차를 타고 아침일찍 상계동에 있는 박정애 선생님댁으로 신나게 달렸다.

- 씨. 씨. 씨를 뿌리고 꼭. 꼭. 물을 주었죠.

-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따당 사냥꾼

-내맘속에 사랑이 싹이 크고 있어요. 친구를 만난 날부터

우리가 부를 노래들을 연습하며 도착한 상계동 아파트 단지내 시설좋은 커다란 놀이터는 아이들에게겐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다.

무대의상(?)이 망가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이나게 놀았다.

와! 이제는 맛있는 점심시간. 정애선생님의 어머님과 동생이 하루전부터 준비하신 점심식사에 또 한번 놀라고..

높은 아파트와 에레베이트 그리고 넓은 집이 아이들의 눈엔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날도 이날이다. 모두들 뻥뻥이 의자에 올라 앉아 자신의 곡을 연주하는데 멋진 음악이 되는 것이었다.

한숨 자면서 행복한 오전을 보내고 공연장인 미도파 백화점에 도착하였다.

"자, 괜찮아. 떨지말고, 긴장풀자. 나가자! 모두다 헉헉헉 뛰어라-"

오잉? 음악이 안나오잖아. 플러그가 빠진 카세트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 들어보셨나요.

"오손도손 어린이집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서는 낯설은 무대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너무나도 당차고 즐겁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씩씩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모두들 신나게 뛰고 노래부르며 무대를 놀이터로 바꾸어 버렸다. 그뒤 담당자에 의하면 마이크 3개가 고장났다고 한다.

무대 공연이 끝난뒤 선생님들 모두 목욕탕에 다녀온 듯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점검하고 그리운 오손도손 애기방으로 향했다. 긴 전철을 타고.

기다리다 지친 어머니들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마중나와 계셨는데 아이들은 전혀 피로한 기색없이 저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에 바빴다.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초청 공연은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신나게는 했지만 우리아이들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큰 형아, 언니들이 나갔어야 될 공연이 아니었나 싶다. 해직된 선생님들을 위한 시와 노래였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주최

쪽의 요구에 맞는 노래공연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날 하루를 위해 며칠씩 억박지르며 아이들을 괴롭혔다면(?)..

그러나 '우리아이들의 나라'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일하는 엄마, 아빠 가까이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설 좋은 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나라여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훌륭하게 자신을 맘껏 표현했던 씩씩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아주신 박정애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주: 음악극 연구소 주최 '우리아이들의 나라' 교육주제 시낭송회가 5월 7-9까지 상계동 미도파 백화점 메트로홀에서 열려 오손도손 얘기방 어린이들이 찬조출연하였다.)

『카이, 다시웃다』를 읽고

이선주
(부천 아이사랑 어린이집)

이 책에는 '감동적인 장애인 소설'이란 표제가 붙어있다.

나는 3년간 탁아소에서 정상아만을 돌보아왔으나 이 장애인 소설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지은이 하트뭇 가젤만은 군복무 대신에 사회사업기관에 대치복무를 하기 위해 장애 어린이 시설을 찾는다. 독일의 그림같은 장애아 시설에

대한 얘기는 주제와 무관하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각종 중증과 경증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들의 보호자와 함께 몇명씩 한집에 모여산다. 하트뭇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하트뭇의 이야기는 전문가의 의학적 서사와는 다른 사랑과 고뇌의 치료과정이다.

하트뭇이 이곳에 적응하게 될 무렵 카이를 만날 기회를 가진다. 카이는 그에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배우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화를 보듯 편안히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카이와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카이의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대상에서 하트뭇은 예외일 수 없었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던 카이에게 하트뭇은 접근할 수가 없었다.

하트뭇의 모든 접근을 카이는 두려워하였고, 막무가내의 공격으로 저항하였다. 그는 자신이 카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의 결론은 카이를 그가 하고 싶어 하는대로 놔두는 것, 그리하여 그가 자유롭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카이를 자유롭게 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전까지 강제로 했어야만 하는 씻거나 변보는 일들이 카이 스스로에게 맡겨졌고, 그럴듯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트뭇의 대치복무기간이 끝나고,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카이는 한사람의 신뢰와 애정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극도로 나빠진 상태에서 카이와 하트뭇, 카이의 어머니, 동생은 여행을

떠나고, 다시 시작된 관계속에서 카이의 원망은 사라지게 된다.

다시 나의 현실로 돌아와서, 나는 하루종일을 30명의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탁아교사다. 하루의 진행을 무난히 하기 위해 하루종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의 대부분은 "빨리"와 "하지마"로 시작하거나 끝난다. 아이들의 무한한 호기심과 장난거리에 동참하기엔 바쁘기만 하다. 아이들은 뭘 수 밖에 없고, 신기한 것엔 관심을 갖기 마련이 아닌가?

그러나 모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내기엔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러나 이렇게 변명해도 되는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작은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상한 나라의 토끼처럼 하루종일 '바쁘다'를 외치며 사는 것은 이제 좀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의 자율을 인정해 주고 기다려 보는 인내를 가져보아야겠다.

카이에게 하트뭇이 하듯.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여행지 - 변산반도 채석강

이상명 (대전 즐거운 놀이방)

개특위(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식구들의 특징은 머리가 무겁다. 그래서 땅을 주로 바라본다. 드디어 지난 모임에 머리 좀 식히자고 작당을 하고 멀리 가기로 결정하였

다. '우와, 신난다.'

"10시 30분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부안대표소 앞에서 만나자!"

같이 일하는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얘기도 못하고

"나, 내일 전주로 회의 갔다 올게!" - 계속 비밀로 할까?

혈레벌떡 대합실안에 들어갔더니 벌써들 모여있다. 지각생이 무슨 염치로 떠들으랴만 한사람이 아직 안왔다고 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함께 웃었다.

모두 도착하였고 우린 짧은 시간이지만 진하게 보내자고 결심하고 출발!

버스에 올라 앉아 있으니 찌뿌렸던 하늘이 드디어 울음을 확 터트리



(지는해를 지고 서서 채석강변에서. 왼쪽부터 김삼순(광주), 서정은(간사), 오춘자(전북), 김현선(대구), 필자, 정희연(부회장))

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우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가야혀, 말아야 허!’

표정은 다들 심각했지만 아무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버스는 전주를 떠나 김제, 부안 그
리고 우리의 목적지 격포! 격포까지
는 매우 긴 시간이다. 출발전 앞자리
에 앉아 경치를 봐야 한다고 해서 앞
에 앉은 희연언니, 춘자 언니는 잠만
자고.. (침도 흘렸지?)

격포에 도착한 우리들은 굶어진
빗발, 거센 바람에 마음이 심란했다.
허나 누가 막으랴! 어렵게 방하나를
찾아 짐을 풀고 바다로- 야호호!

종전에 들어온 배에서 내린 싱싱
한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는 것을 보
고 모두 침이 꿀꺽, 회가 동하였다.

우선 먹고보자! 일용할 양식거리
를 사서 방으로 들어왔다. 위대 징그
럽지도 않나버잉- 금방 방안에는 옥,
해, 공군이 총출동, 먹을 것 앞에두고
체면 차리면 촌놈이지. 안그려? 이런
생각을 하며 손가락을 찹찹 빨며 정
신없이 먹어대는데 꿈틀대는 생낙지
한도막을 캣잇위에 덕 올리더니 전주
지역 오춘자 선생님 왈,

“오! 쥐여” (주를 강조)

하며 한입에 쏙 넣지 않겠는가. 하
하하. 호호호. 모두들 그동안의 쌓였
던 피곤함을 다 잊은 듯 했다. 여자
들 여섯명이 방안을 훌쩍 뒤집어 놓
고 6시쯤 밖으로 나왔다.

배도 부르고 유쾌한 탁아소현장의
감칠맛 나는 얘기들의 여운으로 전망
대를 올랐다. 낡은 철계단을 한사람
씩 올라 바라본 서해바다에 끌려 채
석강쪽으로 발을 옮겼다. 중국무술영
화를 찍는 배경으로 흔히 쓰이는, 바
닷물에 의해 깎인 바위가 꼭 책을 펴

놓은 것 같이 생겼다하여 채석강이라
한다는 곳.

“나, 안갈래.”

“나도, 여기 너무 멋지다.”

비온 뒤의 바닷가, 흐린 하늘, 그
것은 정말 표현 못할 아름다움과 분위
기 그 자체이다. 아쉬움과 언제 다시
올까하는 마음을 뒤로한채 우리는 그
렇게 채석강을 빠져나왔다. 떼기 어
려운 걸음 옮겨 뒷걸음으로..

그러나 환상에서 우리는 곧 현실
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전주로 나가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리행 버스를 타
고 부안에서 둘 (전주, 광주개특위장)
이 내리고 부산가는 정은언니, 서울가
는 희연언니, 현선언니와 같이 대전으
로 가기로 하고 이리까지 왔는데 아
뽕싸, 외부지역으로 나가는 버스는 8
시정도면 끝나는 것을.. 아이구! 그
암담함은 (뒷 얘기는 각자에게 듣는
것이 훨씬 좋겠지유)

비를 쫄딱 맞고 집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오늘 본 회색의 채석강을 잊
지 못하리라. 이번 여름에 잠을 내어
지탁연 가족 여러분이 꼭 가보길.
(주의: 채석강은 옛부터 이별과 눈물
의 장소이므로 애인과의 동행은 안된
다고 함.)

우리들의 목소리에 실을 원고를
구합니다. 지탁연 가족 여러분의
진솔한 느낌이 담긴...
매월 20일까지 편집부로 주세요.

새책소개

청바지 여성학

글쓴이 / 마르타 다미에, 율킨이/
샘기획, 펴넛곳 / 소나무, 값 / 4천원

이 책은 남녀관계와 그것의 사고
방식 변화를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저술 중에서 내용별로 뽑아 글쓴이의
해석을 곁들인 읽기에 편한 책이다.

여성해방을 한걸음씩 앞으로 나서
게 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이 책은 앞서
살다간 여성들의 여성해방 외침이 현
대에도 전혀 퇴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 열린사회와 그 적들 -

글쓴이 / 김소진, 펴넛곳 / 솔, 값
/ 4천 5백원

1991년 신춘문예에 당선된 글쓴이
의 단편소설 「쥐잡기」를 보면 사라져
가는 민중언어의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신문기자이기도 한 글쓴이
는 글속에서도 그걸 숨기려고 애쓰지
않고 기자를 앞으로 내세워 사회의
한 모습을 취재하듯이 보여준다. 그
리고 작가의 체험이 스며있는 아버지
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이웃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 사랑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장편소설이 넘쳐나는 요즘, 많은
할말을 억제하고 절제된 단편이 모아
져서 된 소설집이 귀한만큼 읽을만한
책이다.

- 이오덕 생활 이야기, 울 면서 하는 숙제

글쓴이 / 이오덕, 펴넛곳 / 산하, 값
/ 2천8백원

어린이가 보라고 나온책인데 어른
이 봐도 좋은 책이다.

1983년에 처음 나와 꾸준히 팔리
다 개정판으로 새로 나왔다. 글쓴이
의 어린이를 위하는 마음이 글 속속
들이 배어있고 비뚤어진 어른과 사회
때문에 병들어가는 어린이를 걱정하
는 마음이 책을 읽으면서 글 읽는 사
람의 걱정이 된다.

- 책 이야기 - 한겨레 신 문이 원하는 좋은책 일백권

펴넛곳 / 한겨레 신문사, 값 / 4천
2백원

한겨레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책
이야기에서 소개된 책을 다시 소개하
고 있는 책이다.

문학, 예술, 한국사, 세계사, 정치,
경제, 인문, 여성, 노동 등으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고 각각의 책이 왜 가치
있는가를, 그 책이 잘 팔리던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3-4세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집

구로지역위원회 아동분과
얼사랑 모임 / 공동 편저

- 담화
- 미술활동
- 동시
- 음률활동
- 율동
- 손유희
- 전래동요
- 노래 동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원 4,000원 / 외부 판매 5,000원

지탁연 베품시장

(판매가 단위는 원, 회원은 (내), 외부는 (외)로 표시함)

판	'93 보육사업지침 내 3,000/외 3,500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 과 미래(한울)」, 3,500	「탁아교사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 집 (지탁연)」 내5,000/외 6,000
매	수. 과학활동자료집 (지) 내 2,500/외3,000	탁아자원활동이란 (지) 내, 외 1,000	우리네 방앗간 - 참기름 8,000 들기름 7,000 /미수가루 5,000
알	<천안 채송화어린이집> 5월 30일(일)개소식을 가 졌음, 주소는 천안시 원성 1동 488-13 현대소아과 2층 (0417-555-0077) <부천 아이사랑 어린이집> 부천 송광사서 독립하여 이 전하였음. 주소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2-15 (032-682-6449) <인천시 민보련> 5월 26일(목)이전식을 가 졌음. 인천시 남동구 간 석3동 102-7 신성교육사 2층 (032-423-8578)		
림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송실대학교 기독교 사회연구소 주최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참여 하실분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람. * 일시: 93.6.28-30 (월-수) (2박 3일간) * 장소: 수원 크리스찬 아카데미 * 주제: 사회발전과 지방자치제 * 회비: 1인당 1만원 ** 지난해에 발간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던 <수.과학 활동자료집>을 재 발간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대금 납부 안내 > 회원 탁아소에 알립니다. 본 회에서 발간, 배포한 자료집, 물품의 대금을 내주세요. 「탁아활동교육자료집」, 「수.과학 활동...」 「보육사업지침」, 방앗간 물품, 한약값 등		
	< 신간안내: 3-4세를 위한 교육활동자료집> 구로지역위원회 아동분과에서는 1년여의 작업 끝에 「3-4세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은 담화, 미술활동, 동시, 음률활동으로 3-4세 교육활동에 있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의 생생함이 담겨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위원회 대표님이 모아서 사무국으로 (내) 4,000/ (외)5,000		
	< 본 회 사무실 이전 > 본 회 사무실이 동국대입구로 이 전을 합니다. 주소는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3층이며 7월 31일 이전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 각 기관에서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개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은 시간을 내 꼭 올해내에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의 충신 보육교사 양성원 (7월 12일부터) 국제 어린이 선교원 (계속 접수)		
구 함	여름을 나기 위하여 냉장고를 구합니다. 본 회 사무실에서 쓸 것으로 연락은 사무국으로	어깨에 매는 가방을 구함 (아동교육간사)	탁아활동의 길잡이 「함께 가는 길」을 함께 만드실 분, 지역 통신 원을 구합니다. (편집부)

편집부에서

* 지난 5월호를 보시고 말씀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표지가 어린이 달의 주제를 잘 나타낸 생동감 있는 사진선정과 새로운 인쇄방법으로 잘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고 전체적으로는 인쇄상태가 안 좋아 보기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면으로는 특집3.의 내용중 만화, 비디오의 경우 우리아이들의 상황과 잘 맞추어서 다루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영양면의 내용이 좋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짧은 기획기 간속에서 제작되어 부실한 면이 많은 5월호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자료회원 신청에 관하여

본 회의 월간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 및 그외 탁아에 관련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분들을 자료회원으로 모십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 만나고 있는 민간탁아소들에게 소식을 권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사무국으로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의 경우에 한하며 6개월 회비 10,000원입니다.

* 「함께 가는 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다솔회 20,000원
(북부지역 전.현직교사 모임)

* 일요일에 도봉산을 갔다. 서울 가까운 곳에 맑은 물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천축사로 올라가는 길 곳곳의 약수물을 마시며 편안한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고 넓게 퍼진 산자락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탁아일이 24시간 생각나는 것이 이젠 익숙해졌음을 이곳에 와서 느낀다. 그리고 혼자오니 새삼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것이 더 소중함을 느낀 하루였다. 산이 불러 산에 와보니 이젠 아이들이 나를 부른다. (애용)

* 회장단과 사무국 식구들의 원고 마감은 외부 원고 마감에서 약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으나 이조차도 늘 빠듯하다. 근 한달간에 있었던 크고 자잘한 소식을 꼭 하루를 잡아서 모두 함께 쓰곤하는데 그날의 사무국은 일순 고요하면서 진지함으로 가득하다.

쓰고 구기기를 몇번, 머리를 싸매고 원고를 쓰는 미영언니의 몇올 남지 않은 앞머리가 걱정되고 죄송스럽네. (정은)

함께 가는 길

6월호 <12호>

*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 곳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02) 838-3296~7

펴낸이: 최현숙

뒤편이: 정희연, 이애용, 서정은

펴낸날: 1993년 6월 15일
